

# 여수 60억대 새조개 채취권 분쟁 풀렸다

시, 어촌계 주민-잠수기 어민 중재 해결

3월 이후 공유수면 130ha 채취 배분 협의

최근 큰 인기를 누리면서 바다의 황금이라 불리는 새조개를 둘러싼 어민들의 다툼이 여수시의 중재 노력으로 가까스로 해결됐다. 갯 새조개 10kg의 소매가격은 70만원 선으로, 3년 전 50만원에서 크게 올랐으며,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연산 새조개 밭 130여 ha가 여수시 돌산해역 어장 사이 공유수면에 대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 이 면적의 새조개가

완전히 성장했다면 그 가치는 60억원대에 이른다.

문제는 이 새조개 밭의 채취권을 놓고 돌산읍 평산리 어촌계 주민들과 잠수기 어민들이 마찰을 겪기 시작하면서 부각됐다.

평사리 어촌계는 양식어장 사이의 공유수면은 통상적으로 어장의 연장선상이라 마을에서 채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잠수기는 양식어장 사이 바다공간은 공유수면이므로 잠수기

어선이 채취해도 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18일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앞 공유수면에서는 새조개 채취 작업에 나선 잠수기 어선 16척과 이를 저지하려는 평사리 어촌계 어선 30여척이 대치하기도 했다.

여수시 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이 출동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새조개 갈등'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가 중재에 나섰다. 공유수면의 새조개가 씨알이 작아 상품성이 떨어진다든 점, 잠수기 어선의 조업도 합법적이라는 점 등을 평사리 어촌계 주민들에게 설명하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수시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은

"수산법에 따르면 양식어장 사이 공간은 공유수면에 해당한다"며 "주민들이 심각한 상황까지 갔지만 꾸준히 만나 설득하니 해결책이 생겼다"고 말했다. 양측 어민은 오는 3월15일 이후 여수수협 및 잠수기 조합이 적절한 새조개 채취 배분을 협의해 채취하기로 했다.

새조개는 그 맛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해 1970년대부터 여수 가막만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채취되고 있다. 여수수협 중매인 김모(52)씨는 "지역에서 새조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지자 채취권을 둘러싼 갈등도 빈번했다"고 전했다.

돌산읍 평사리만이 아니라 돌산해

역, 모도 앞바다 등 여수 가막만 해역 일대에서는 새조개를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창규 해양관광수산국장은 "공유수면에서 서로 이익을 채우기 위해 분쟁하는 것을 두고 '공유'의 비극'이라고 한다"며 "바다오염 등으로 해양자원이 고갈되면서 새조개 가격이 높아지자 먼 바다에서 주로 작업하던 잠수기 어선들이 연안 양식장 사이 공유수면까지 채취작업을 시도하면서 분쟁이 더 잦아졌다"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공유수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건의해 새조개 채취권 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비반방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목이버섯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쫄깃하다.

## 광양 '목이버섯' 고소득 작목 기대 7t 처녀 수확... 1작기 400만원 年 4작기 가능

광양시 농가의 틈새소득 작목으로 기대받고 있는 '목이 버섯'이 첫 수확한다.

지난31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2개소 1325㎡에 2600만원을 지원해 시범재배 한 목이버섯이 잘자라 7t의 생산이 예상된다. 생산된 버섯은 ㈜울진에서 전량 구매할 계획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목이버섯은 1작기 평균 재배기간이 50일(여름 30~40일) 벼 육묘기간(3월~6월)을 제외하고도 4작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600㎡ 1작기에서 예상되는 농가 소소득은 400만원 상당으로 재배기술이 정착되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면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는 시범사업에 성공함으로써 목이버섯 재배를 이끌어 갈 선도 농가를 지정하고 생산된 목이버섯은 학교 급식 등 수요 확대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벼 육묘시설을 버섯 재배시설로 이 용함으로써 보조사업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벼재배농가 농외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광양시는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 재배 농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무에 붙은 귀 같다고 하여 이를 붙여진 목이(木耳)버섯은 주 성분인 식이섬유로 이뤄져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산내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입주식을 마친후 후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지난해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던 강진군 마량면의 '산내동 지역아동센터'가 새롭게 태어났다.

강진군은 강진군 마량면 지역 소외계층 아이들의 꿈의 공간인 '산내동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해 지난달 30일 입주식을 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유일한 문화시설이자 공부방인 '산내동 지역아동센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공부방 다시 생겼어요”** 볼라벤 피손 강진 '산내동 아동센터' 초록우산 재단 등 각계 지원 재건

지부와 SBS 방송국 지원 등으로 다시 지어졌다.

'산내동 지역아동센터'는 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대지 391㎡에 전체면적 223.47㎡, 2층 건물로 공부방, 도서관, 식당 등 어린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부

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후원자로부터 2억5000만원을 모았다.

기아자동차, SBS 방송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각각 5000만원, 관내 후원자들이 1000만원을 후원했다.

또 유니온스틸 등에서 고급 건축

자재, LIG그룹은 전기제품 등 물품비용, 석유협회 등 많은 기관 단체에서 후원이 이어졌으며 임직원들이 가구 제작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후원업체·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입주식에서 물심양

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SBS 방송국, 기업체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민경순 지역아동센터장은 "센터가 무너져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많은 분의 도움으로 아름답고 맛있는 건물이 건립돼 기쁘다"며 "후원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농협 문어발식 사업 확장 말라”

읍내 직영 유통업체 잇단 개소에 중소상인들 반발

강진농협을 비롯한 조합들이 직영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진읍내에 잇따라 문을 열면서 중소 상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지난 3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농협은 강진읍 동성리 파머스마켓 인근에 2500여평 규모의 대규모 영농자재

백화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최근 상당량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강진농협은 이사회에서 영농자재백화점을 파머스마켓과 맞닿은 곳에 세우기로 하고 사업을 확정했다. 이곳에는 대규모 영농자재백화점과 함께 현재 강진읍 학평리 농공

단지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옮겨올 예정이다.

강진농협은 이에 앞서 지난해 25억 원을 들여 파머스마켓 매장을 200여평 증축해 500여평 규모로 키웠다.

강진읍내에서 하나마트(남성리)와 파머스마켓(동성리)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강진농협은 지난해 파머스마

켓에서만 19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판매하고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 시장 대부분을 잠식해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강진완도축협은 청사를 지난해 파머스마켓 인근에 신축하면서 1층에 100여평 규모의 하나마트가

입점했다.

강진산림조합도 최근 강진읍의 2차레예식장을 매입해 경영인정 목표달성과 조합원의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각종 경영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김모(강진읍)씨는 "강진농협이 조합원들의 이익과 편리성 증대를 앞세우고 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행위"라며 "상인들중에서도 농협 조합원이 많은데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절도범 잡고, 인명구조에 뺑소니범 검거까지 '주민 파수꾼' 장성 통합관제센터

방법·재난상황실·초중고 CCTV통합 시스템

장성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한 통합관제센터가 절도범을 잡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방법과 재난종합상황실, 초·중·고 CCTV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지난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2시께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CCTV 모니터를 확인하던 중 장성읍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 요원은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112 무전으로 순찰차를 현장에 급파해 절도범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과 관계요원 등 23명이 24시간 근무하며 곳곳에 설치된 322개의 CCTV를 주시하고 있다. 322개의 눈이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에는 장성대교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추락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재빨리 인명구조에 나섰다. 운전자를 탄 어린이를 친 후 달아난 뺑소니 차량을 검거하기도 했다.

장성군의 한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를 열고서 1년간 살인 등 강력범

죄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44곳을 추가로 선정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군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전남도 정보화연찬회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방정보통신정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합평 나비대축제, 고객 충성도 1위**

합평나비대축제가 '대한민국 고객 충성도' 지역축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1일 합평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경영인협회가 최근 기업 상품과 지자체 축제 등을 상대로 고객충성도를 평가한 결과, 합평나비축제가 1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영인협회는 매년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입장권 수입과 농·특산물 현장 판매 등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교통질서 시민 스스로 지킵시다”

**목포경찰서, 캠페인**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지난 30일부터 사흘간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이 캠페인은 '목포가 무질서하다'는 외지인들의 비난이 높게 일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전남지방

경찰청 소속 교통관리대 1개 중대를 투입,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에 대해 지도 계몽 활동을 펼친다.

3월에는 목포시 등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사진)

목포경찰서 관내에서는 지난해 334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5명이 숨져 전년보다 4.83% 늘었다. /목포=김병만기자 dss6116@

# 올해 쌀 한 가마니 17만9000원

농촌경제연구원-전남도 전남 지난해보다 3% 올라

올해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지난해 보다 3% 오른 17만9000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별 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을 벌였다.

## 장흥 처녀우 통합브랜드 이름은 '구뽐한우'

장흥군의 처녀우 통합브랜드로 '구뽐한우'가 선정됐다.

장흥군은 미경산(처녀)우의 브랜드 네이밍을 공모해 전체 107건 응모작 가운데 심의회를 거쳐 '구뽐한우' 브랜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13명의 한우 전문가가 심의를 한 결과 아씨한우, 토담우, 미소우 등 여러 브랜드가 많았으나 토론 끝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순우리말 '구뽐한우' 브랜드로 결정됐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은 지난해 연이은 태풍으로 백수(벼 이삭이 수분을 뺏기면서 하얗게 말라죽는 현상) 피해로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소폭 오른 쌀은 2013년 벼 재배의향 면적 감소(0.5%)도 줄어 17만 원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돈산업의 경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산량은 80만1000으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며, 가격안정 대책으로 당박 기준 지역가격은 1kg당 4013원으로 전년보다 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